

임직원도 사회공헌 한뜻... '각양각색 온정' 나누는 유통가

연말 맞아 잇단 사회공헌 활동
애경산업, 연탄 기부 이벤트
교촌치킨, 이웃에 치킨 전달
롯데GRS, 햄버거 제조 기부
나눔활동에 대표도 팔 걷어

연말을 맞아 고객에게 받은 성원을 돌려주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생활뉴티기업 애경산업에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 'AK LOVER(러버)'를 내세워 '사랑의 연탄 나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AK 러버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댓글 1개당 5장의 연탄을 기부하는 이벤트다. 여기에 응원 메시지 중 20개를 선정해 해당 댓글을 단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애경산업 생활용품 및 화장품 등을 제공한다.

AK 러버에서 댓글 참여로 기부되는 연탄은 애경산업에서 기부 예정인 5000장의 연탄에 더해 올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에서 이번에 연탄 나눔을



지난 16일 롯데아동복지센터에서 차우철 롯데GRS 대표(가운데 오른쪽)와 이수연 롯데아동복지회 회장(가운데 왼쪽), 롯데GRS '주니어보드' 직원들이 직접 만든 햄버거와 디저트 등을 기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GRS

실천하는 통로인 AK 러버는 자사의 뷰티, 생활용품 등을 직접 사용해 보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 알리는 온라인 서포터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임직원들이 몸소 움직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만났다. 지난 16일 교촌 측은 서울시도봉구에 위치한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 치킨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교촌에프앤비의 조은기 총괄 사장을 비롯해 교촌 임직원들이 동참해 히니오리지날, 발사믹치

킨 등 100마리 치킨 등을 전달하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치킨은 코로나19 상황 속 위생 안전을 고려해 개별 포장으로 제공됐다.

교촌과 임직원들은 치킨 외에도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쌀, 김 등 식료품이 담긴 식품 키트도 마련했다. 식품 키트는 해당 지역 100가구에 전달됐으며 추가로 3가구를 선정해 전자레인지, 전기메트 등을 전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을 얻고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

라는 마음을 담아 교촌 임직원들이 모여 이번 나눔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속 오프라인 기부 문화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롯데GRS는 차우철 대표이사 MZ세대로 구성된 기업문화 TFT 조직인 '주니어보드'와 햄버거를 직접 제조해 기부 봉사 활동을 했다.

차 대표는 롯데리아 화정점에 직접 방문해 햄버거 조리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주니어보드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조리된 햄버거 세트와 방역물품 마스크 6000매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일산 롯데아동복지타운에 제공했다.

롯데GRS 주니어보드 직원들은 롯데복지타운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도 이어서 진행했다.

롯데GRS 측은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중단된 대면 봉사 및 기부 활동에 대한 활기를 띄우고 의미를 더하고자 차우철 대표가 직접 참여했다"며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 이웃과 사회적 약자 계층 등 다양한 영역들에 온정의 손길을 전달하는 사회적 책임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종근당 '닥터큐어벨 바디로션' 출시

종근당은 자연유래 성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닥터큐어벨'을 소개하고, 첫 제품으로 '인텐시브 모이스춰라이징 바디로션(사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큐어벨 바디로션은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쉐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들나물을 주성분으로 보습에 효과적인 10가지 수분아미노산 콤플렉스, 세라마이드의 흡수력을 강화한 세라쵸, 3중 히알루론산을 더한 제품이다. 피부임상 전문 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30일간 사용 후 피부 가려움이 70.5% 개선됐으며 피부 장벽이 19.7%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동물성 원료와 동물실험을 배제한 비건 화장품으로 프랑스 비건 협회로부터 이브비건 인증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교촌치킨 치킨 가격 최대 2000원 인상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오는 22일부터 품목별 500~2000원 사이의 권장 가격 조정을 시행한다.

교촌치킨의 이번 권장 가격 조정은 지난 2014년 일부 부분육(콤보/스틱) 메뉴 조정에 이어 7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가격 조정을 통해 가맹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촌오리지날, 레드오리지날, 히니오리지날 등 한 마리 메뉴 및 순살메뉴의 경우 1000원이 인상되며, 원가 부담이 높은 부분육 메뉴는 2000원이 오른다. 인상률은 평균 8.1%(동결메뉴 제외)다.

대표 메뉴로 살펴보면 교촌오리지날과 히니오리지날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 교촌왕과 교촌콤보가 1만7000원에서 1만9000원, 레드왕·레드콤보·히니콤보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외에도 일부 사이드메뉴가 500원 상향 조정된다. /원은미 기자

bhc, 아웃백 인수

bhc그룹이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종합외식기업으로 발돋움한다.

bhc그룹은 지난 7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인수 절차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한 가운데 지난 17일 SPA(주식매매계약)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모두 완료하여 인수를 위한 최종 절차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인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bhc그룹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했다.

bhc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bhc그룹은 국내 최대 종합외식기업으로의 성장은, 물론 고객 만족을 통해 국내 외식업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

롯데, 軍·아동에 뽀뽀로 '행복 나눔'

해군에 뽀뽀로 8만여 개 전달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공헌도
강원도에 '스위트스쿨' 2호

롯데 국민과자 '뽀뽀로'가 뽀뽀로 데이가 있는 11월 훈훈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군부대,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고 있다.

롯데는 지난 11월 제 76주년 해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부대를 위한 뽀뽀로 8만 개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11일은 '뽀뽀로데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창설 기념일이기도 하다. 롯데는 해군 창설 기념일을 축하하고,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위문품을 지원했다. 위문품은 인천, 계룡, 진해, 제주 등에 복무 중인 해군·해병대 장병들과 군무원 전원에게 전달된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서애류성통합'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제과 간식자판기' 30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세븐일레븐이 해군 순항훈련 전단에 1000만원 상당의 과자, 라면, 가공식품, 음료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 세븐일레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1억원 가량의 후원 물품을 해군에 전달하며, 나라사랑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원통초등학교에 두 번째 '스위트스쿨' 문을 열었다. '스위트스쿨' 사업은 뽀뽀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스위트스쿨'의 이름은

'꿈담터 놀이터'로, 원통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롯데제과는 뽀뽀로의 판매수익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고 있다.

스위트스쿨은 지난해 부산시 방곡초 내 1호 개관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고,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은 2013년 1호를 시작으로 올해 9호점을 개관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랜드마크로 소풍을 떠나는 '스위트피크닉' 활동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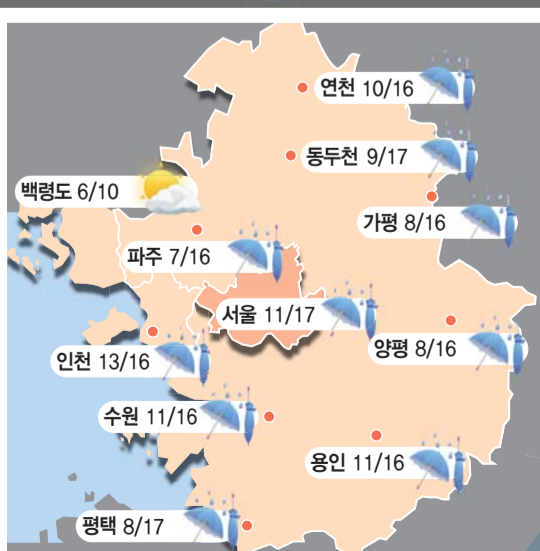
또한 2018년부터는 '스위트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 견과류 등으로 구성된 영양 키트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오늘의 날씨

11월 19일 (금)
음력 : 10월 15일

수도권 날씨
11 ~ 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오비맥주, 물류현장에 전기 지게차 투입

2022년 말까지 교체·운영

오비맥주가 전국 21개 물류 직매장의 지게차를 2022년 말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작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디젤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비맥주는 11월 현재까지 30대의

전기 지게차를 도입했다. 오는 연말까지 35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지게차는 1대당 연간 약 14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전기 지게차는 작동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이번 교체를 통해 연간 약 1176 톤의 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한양행 토탈팻케어 '윌로팻' 론칭

유한양행이 이번엔 토탈팻케어 브랜드 '윌로팻'을 론칭하며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 이어 펫푸드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국내 최초 반려견 인지 기능장애 치료제 '제다큐어'를 출시하며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확대에 나섰다. '윌로팻' 출시와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윌로팻 사료는 부드러운 키타(사료 알갱이)가 가장 큰 특징이다. 특수 공법으로 차별화된 부드러운 사료로 급여 시 반려동물 치아의 부담을 덜어 주고, 기호성과 소화 흡수율을 높인다. /이세경 기자